

임진왜란과 固城 의병의 활동 양상

신 윤 호*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3. 『雙忠錄』과 『雙忠實紀』 검토 및 분석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전투
 -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 나. 九萬·尺岷 전투
5.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 가. 기문포해전과 의병장 박애상
 - 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6.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명·일 삼국이 관계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명나라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당초 征明假道, 즉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벌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개국 이후 약 200년간 큰 전쟁이 없어

* 국립진주박물관 연구원

군제의 폐단이 야기되었고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방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예컨대, 개전 20일 만에 한성을 점령당하였고 약 2~3개월 만에 호남을 제외한 조선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유린되었다. 반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100년간 내전이 있었으니 이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할 엄청난 수의 정예병들이 자연스럽게 양성되었다.¹⁾

조선과 일본의 군사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일본군이 퇴각함으로써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의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명군의 출병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은 곳곳에서 수십 혹은 수만 명 단위로 기병하여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본고에서는 고성지역의 전황과 의병활동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만, 김준형에 의해 진주성전투가 있기까지 진주 주변에서의 의병활동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고성지역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명철은 최균·최강·이달 등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을 뿐이다.²⁾

고성은 해안지역으로서 수륙 양면으로 적침에 노출된 곳이었다. 임진왜란 초, 일본수군이 남해안을 침략하여 원군이 이끄는 경상우수군을 무찌르고 진해·고성·사천 등지로 상륙하였으며, 창원·함안·진해 등지의 육로를 통하여 침략해 오기도 하는 등 일본군의 분탕과 횡행은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니 최균·최강·이달·안신갑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병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사천·진해·창원·웅천에

1) 일본의 戰國時代로서 수많은 정병을 양산한 戰國大名의 성장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 된다.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사림』 29, 수선사학회, 2008); 速水融(조성원, 정안기 옮김),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해안, 2006.

2) 김준형,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방어와 의병활동 - 제1차 진주성 전투 이전-」(『경남문화연구』 17, 경남문화연구소, 1995)
최명철, 『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관한 연구 - 최균, 최강, 이달을 중심으로-』(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4)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었다. 고성의병의 활약상을 논하기 위한 자료로서 최균·최강의 유고 및 행적을 다룬 『雙忠錄』과 『雙忠實紀』를 들 수 있는데, 이외에 여타 사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그 간행과정과 성격을 알아보고, 중요한 부분은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정유재란 시기 고성현령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동상, 고성왜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고성출신 인물들은 이 외에도 많으나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고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례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1번대~9번대까지 15만여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였다.³⁾ 부산진에 이어 동래부까지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곧바로 북상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였다. 조선은 대규모 적침에 놀라 지방수령들이 앞 다투어 달아났고 임금까지 피난을 떠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한편, 부산으로부터 남해안을 통해 진격해온 일본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도도 타카도라(藤堂高虎)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단이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나고야성에서 부산으로 침략하는 배의 수송이 원활하도록 對馬島, 壹岐島 등에 배치되었고,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격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⁴⁾

고성지역에 일본군이 처음 침략해온 시기는 4월 말경이었는데,

3) 豊臣秀吉朱印狀案-天正20年 3月 13日付-(『秀吉と文祿・慶長の役』,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2007, 24~25쪽)

4)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79쪽.

원균의 경상우수군을 격파하고 진해·고성 연안으로 출몰하던 일본 수군으로 추측된다. 이후 원균은 원균을 요청하여 이순신의 전라좌수군과 연합한 후 5월 8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합포·적진포·사천·당포·당항포 등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황급히 상륙하여 도주하였는데 함선이 격파되어 사천·고성·진해 등 육로로 횡행하며 분탕질을 하였다. 5월 말경 일본군이 고성을 점령한 후 西進하여 사천성까지 점령하였다.

사천성을 점령한 일본 장수는 가메이 코레노리(龜井茲矩[眞矩])로서 사천 부근에 배를 정박하고 상륙하여 사천성 뿐 아니라 곤양·하동까지 진출하였다.⁵⁾ 한편, 고성성을 점령한 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堀内氏善)라는 수군 장수였다. 일본 선단을 이끌던 그가 상륙하여 고성을 침략한 과정을 살펴보면, 4월 일본수군이 경상우수군을 와해시킨 후 도도 타카도라 등과 함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었다.⁶⁾ 이때 조선의 수군 가운데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연합한 후 진격하여 5월 7~9일, 옥포·합포·적진포 등에서 승전한 후 잠시 물러나 있었다. 이 해전에서 파선된 일본수군은 진해·고성 등지에 상륙하여 분탕질을 하였다. 진해현감은 도주하고 고성현령 金絢은 형벌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자로서 백성들의 이반현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도주하였다.⁷⁾ 그 외의 일본선단은 다시 여러 부대로 나누어 사천·곤양, 고성·진해 등지로 진출하여 상륙한 후 각지를 침략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미 일부 일본군이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가세하여 고성성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며, 가메이 코레노리 역시 사천·곤양 지역으로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이 출발하여 노량해역에서

5)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쪽.

6)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5·214쪽.

7)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원군과 합세하였다. 사천 선창 앞바다에 이르자, 선창에 일본군 4백여 명이 진을 치고 일본군선 12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북선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고 적선을 불태우자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주하였다. 이어 조선수군은 당포에 있는 적을 발견하였는데, 당포 선창에 배를 대고 성 안팎으로 진을 친 일본군을 다시 공격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웠다. 이때 우후 이몽구가 왜선을 수색하여 가메이 코레노리의 금부채를 발견하였다.⁸⁾ 즉, 가메이의 군대가 사천을 비롯하여 당포부근까지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조선수군에 의해 해상로가 봉쇄되자 점령한 읍성을 중심으로 수성전에 들어갔으며 사천·고성·진해 등에 주둔한 일본군은 서로 군사 백여 명이 왕래하며 연락선을 형성하고 육로를 통한 진격을 꺾하였다.⁹⁾ 5월 말경, 초유사 김성일은 김대명·한계·정승훈에 군사 6백여 명을 모집하여 고성의 崔壩·李達 부대와 합세하여 사천·고성의 적을 공격하자 적은 웅천·김해 등지로 달아났다. 이에 창원 마산포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¹⁰⁾ 이후 다시 일본군이 고성·사천 등지로 침입하였고, 고성의 일본군이 진주로 침범할 기세를 보이며 남강 이남지역까지 박두하자, 진주판관 김시민·사천현감 정득열·곤양군수 이광악 등이 군사를 정비하여 사천·고성·진해 등지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고성은 일본군과 이에 부역한 조선인들이 고성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 탈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¹¹⁾

김시민을 필두로한 군사들이 고성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진주로 회군했을 때, 흩어졌던 사졸들이 모여 군세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8)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唐浦破倭兵狀』.

9)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10)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5월 20일 (閔老峯所撰中興誌).

11) 『선조실록』 27권, 25년, 6월 丙辰(28일).

사천의 일본군이 진주를 범하려 한다는 소식에 김시민은 우병사 조대곤과 함께 사천성으로 진격하였다. 十水橋에서 싸워 깨뜨리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사천성 아래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얼마 후 사천성을 지키던 가메이 코레노리는 밤을 틈타 고성성으로 도주하였는데, 고성성을 수비하던 호리노우찌 우지요시는 이미 웅천으로 퇴각하였기 때문에 가메이 코레노리의 군대가 고성성을 수비하게 되었다. 김시민이 이끄는 군사가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기 위해 永善縣에 진을 쳤다가 밤중에 大屯嶺을 넘어 새벽에 고성성 아래에 당도하여 군세를 과시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며칠 후 밤에 달아나 8월 말, 진해의 일본군과 합세하여 창원으로 퇴각하였다.¹²⁾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으니 이 공로로 김시민은 진주목사로 승진하였다.

고성지역은 임진왜란 초부터 조선군과 일본군의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부산·김해·창원 등지에 주둔한 일본군의 침략에 시달렸으며, 거제도·가덕도 등에 주둔한 일본수군의 분탕질이 끊이지 않는 등 수륙 양면으로 일본군의 출몰이 잦아 혼란의 중심에 놓인 곳이었다. 일본군의 예봉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던 만큼 향토수호를 위한 의병활동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12) 『난중잡록』 1, 임진년 8월 4일·9일; 『고대일록』 권1, 임진년 秋9월 1일(丁巳);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204·205쪽;

특히 『일본전사-조선역-』의 관련 서술내용에 의하면 가메이 코레노리가 고성에서 창원을 거쳐 부산으로 철병한 이유가 하시바 히데카츠[羽柴秀勝]의 철군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김시민軍의 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참고자료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조선 측이 사천성을 공격하자 고성성으로 도주하였고,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자 창원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에 비춰봤을 때 비록 가메이군이 고성성에서 철군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전세가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3. 『雙忠錄』과 『雙忠實紀』 검토 및 분석

〈표 1〉 『雙忠錄』과 『雙忠實紀』의 구성과 내용

『雙忠錄』 (1823刊)		『雙忠實紀』 (1929刊)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 柳尋春			
世系	1世~20世까지의 世系圖	重刊雙忠實紀 編定總例	중간한 이유와 수정·편집된 내용 사례 서술			
권1	詩	권1	先系	始祖 및 1代~10代祖까지의 행적을 기록		
			事實			
			書	遺稿	詩	送季弟汝堅壩赴學
						次姜渭瑞應璜想思詞四首
						次徐藥峯消韻渭瑞
						次姜渭瑞見贈
						贈姜渭瑞
						亂定後歸故山
						與季弟自京還鄉
						投筆
	喜孫兒生二首					
	實記	書	狀	與姜士盍僑○ 壬辰		
				與姜士盍		
				答姜士盍		
				答姜渭瑞 壬辰		
				答姜渭瑞 乙未		
				答姜渭瑞		
				答姜渭瑞 丙申		
				答姜渭瑞		
	蘇湖公實記	狀 上觀察使狀				
蘇溪公實記	行狀二 墓碣銘二					

권2	遺事	龍蛇倡義事蹟	권2	家乘		
		濟州勝戰事蹟		敘述		
		蘇湖公遺事		遺事	蘇湖公遺事	
		蘇溪公遺事			蘇溪公遺事	
	補遺	本縣邑誌		挽蘇溪二		
		趙公慶男山西雜錄		贈職焚黃韻		
		徐稟峯消與姜白川書		권3	褒典	敎加里浦僉節制使崔垆書
		李忠武公舜臣與姜白川書				宣武原從功臣錄勳 敎書
		察訪公諱振虎蘇湖公季子答姜松窩書				道儒請贈 上言
		권3 附錄				敎書
蘇湖公行狀	禮曹回 啓					
行狀	蘇溪公行狀		禮曹關文			
碣銘	狀後識	禮曹再 啓				
	蘇湖公碣銘并敘	敎旨二				
권4	詩	蘇溪公碣銘并敘	권4	褒典	焚黃告由文二	
		姜松窩偁贈蘇湖公			請諭 上言後禮曹回 啓	
	輓	輓蘇溪公			祠院	諡狀二
		道山祠奉安文				諡狀
	附	常享祝文				褒典
		祠宇上樑文		宣諭時告由文二		
		講堂重修上樑文		권5		從遊諸賢錄
		雙忠錄跋二首			請旌 上言後禮曹回 啓	
		道內士林呈營請褒狀			禮曹立案	
		本縣士林呈繡衣金學淳請褒狀			祠宇上樑文	
請 贈時道儒上言		講堂重修上樑文				
本孫請 贈上言		奉安文二				
啓目	禮曹回 啓	祠院	常享祝文二			
	禮曹下本道關草		祠宇重修上樑文			
敎旨	禮曹再 啓	祠宇重修記				
	증직교지(최균)	還安告由文二				
奉安文	증직교지(최강)	從遊諸賢錄				
	蘇湖公奉安文	倡義諸賢錄				
		蘇溪公奉安文	雙忠實紀舊本跋			
		遺墨後敘	雙忠實紀重刊跋			

고성지역 의병활동의 주축은 최균·최강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료로서 1823년에 간행한 『쌍충록』과 1929년에 간행한 『쌍충실기』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료는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쌍충록』 간행 이후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 『쌍충실기』 간행시

이러한 추가 내용을 반영하였다. 『쌍충실기』의 「重刊雙忠實紀編定總例」는 추가된 내용 및 목차 구성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예컨대, 『쌍충실기』 권2의 「家乘」·「敘述」·「遺事」는 『쌍충록』 권2의 「龍蛇倡義事蹟」·「濟州勝戰事蹟」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근거로 삼았던 출처별로 분류하여 각각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권5의 「從遊諸賢錄」·「倡義諸賢錄」은 이 책에서 고증된 것만 가려서 새로이 구성하였다.

『쌍충록』과 『쌍충실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권1의 「書」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주고받은 간찰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최균·최강 형제와 간찰을 주고받은 인물은 姜僞과 그의 아들 姜應璜이다. 강칭의 자는 士蟲, 호는 松窩이며 강응황의 자는 渭瑞, 호는 白川이다. 그런데 이 간찰의 내용 및 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아래의 『쌍충록』에 수록된 간찰 원문은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다.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鳳城分手後蠹樹蒼蒼送君舍情物非人而如是則人可以勿不如哉耿耿兵燈不寐者久矣已而帳外有聲開戶視之豚兒來到忽傳半百里心旣三復燈前如對吾壺合席妮妮而欣然有喜色矣不料金別將且擎一千里手滋初聞驚愕茫然開緘是乃行施後平安消息而問術於愚矣然吾尊之用兵古之太公兵仙則餘外秘策問於天問於地問於神而何問於庸陋一賤姿乎如愚之愚向者鼎津軍伍既失偶與趙君宗道郭君再祐纔到本營有對壘之舉卯君月前與別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熊川鎮而尚未返營心甚訝鬱示中興兒起送之教不啻慰懃情誼而振兒以子弟軍官昨送熊川鎮手下無人未副盛教茹恨爲如何哉惠來想思詞律忘拙和呈豈無一粲笑耶詩見上餘不備洞下散人均拜¹³⁾

13) 『쌍충록』 권1,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첫째, 간찰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다. 본문에 ‘李統使’라는 단어가 있다. 李統制使, 즉 이순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은 1593년 8월 15일 이순신이 최초로 임명되면서 생겼다. 그런데 이 편지는 壬辰(1592) 10월 13일에 쓴 것으로 이때는 통제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모순이다.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책 간행 당시의 관점에서 명칭을 바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이를 『쌍충실기』에 실린 원문과 비교해본 결과, 『쌍충록』에 비하여 『쌍충실기』는 간찰의 글자를 바꾸거나 여러 부분에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앞서 다루었던 ‘李統使’가 『쌍충실기』에는 ‘李水使’로 수정되어 있으며, 권율을 가리키는 ‘權元帥’¹⁴⁾가 ‘權光州’¹⁵⁾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의 □칸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쌍충실기』에서는 누락된 부분이다. 간찰의 내용이 곳곳에서 누락되었음에도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舊本(쌍충록)을 참고했음에도 이 정도로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비단 위의 본문 뿐 아니라 모든 간찰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與姜松窩」·「答姜松窩」이 두 간찰 내용은 『쌍충실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셋째, 간찰의 작성한 날짜를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간찰의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인데, <표 1>의 권1, 「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쌍충록』에는 정확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있으나 『쌍충실기』에는 이를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찰의 작성시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최균이 강응황에게

14) 『쌍충록』 권1, 書, 「答姜松窩書 壬辰臘月十七日」.

15) 『쌍충실기』 권1, 書, 「答姜士盎」.

보낸 답서가 壬辰(1592) 10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편지의 내용에 “아우(최강)가 이달·안신갑과 한 달 전에 웅천의 李統使(이순신)를 구원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순신의 수군과 연계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전투를 벌인 시기는 1593년 2월~3월이다. 이 답서를 쓴 10월 13일은 1차 진주성전투(10월 5~10일)가 끝난 직후인데, 최강·이달은 이 진주성전투를 외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진(담티고개)에 있던 최균이 몰랐을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진주성 수성방략에 따라 임진왜란 초부터 1차 진주성전투를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진주성 주변에서 활동했던 최강·이달 부대가 갑자기 9월 즈음부터 한 달 가량 웅천에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대로 최강·이달·안신갑 등이 웅천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일까. 앞서 서술하였듯이 1593년 2~3월,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육상군과 협력하여 한 달 이상 웅천에 머무르며 수륙양면으로 적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¹⁶⁾ 이순신이 1593년 2월에 올린 장계¹⁷⁾에는 수륙 합공을 위해 이미 경상우도순찰사(김성일)에게 공문을 보내 병마를 거느리고 웅천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성일의 지휘 하에 있던 최강·이달 부대가 이때 웅천으로 부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달의 『雲圃實紀』에는 그의 집안 기록인 『家乘』과 『쌍충록』을 전거로 하여 웅천에서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구원하러 이달·최강·안신갑이 함께 갔다고 하였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 『난중일기』 癸巳年 2월 18~20일·3월 6일.

17) 『이충무공전서』 권3, 狀啓二,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二十六年癸巳二月(1593년 2월)

李舜臣進攻倭人於熊川 義兵將李達·崔瑠·安信甲往救之 前後八戰 敵勢大挫家乘

蘇湖崔公答姜應璜書略曰 月前卯君與李達安信甲往救李統使于熊川鎮而 尙未返營心甚訝鬱云云雙忠錄¹⁸⁾

특히 『쌍충록』을 전거로 밝힌 기사는 위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적을 1593년 2월의 기사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쌍충록』을 근거로 직접 내용까지 인용하였으나 그 행적의 시기만큼은 다르게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壬辰 10월 13일)는 최강·이달 부대가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던 사실, 이순신 수군이 육상군과 연합하여 치른 웅천전투, 『운포실기』에 수록된 사례 등을 참고해 보면, 계사년(1593) 2월~3월 사이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부분은 『쌍충실기』에 수록된 「上觀察使狀」¹⁹⁾이다. 이 문서는 『쌍충록』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발견되어 『쌍충실기』에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최강이 1592년 7월 초에 고성에서 왜적과 전투한 결과를 관찰사 김수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탁영의 『征蠻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탁영은 김수의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몇 곳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자.

‘固城縣伏兵將崔瑠馳報內 倭賊二千餘名 今七月初三日 分三運入來爲去乙 率軍五十餘名 先運接戰射中三倭 賊勢暫退 老弱軍乙良 專數登山 更率精勇軍三十餘名 一時隱伏要路處 多設弓弩 村家焚蕩回軍時 先鋒二倭亦逢弩致死 賊徒載去中路燒燼爲乎所馳報是白齊’²⁰⁾

18)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二十六年癸巳二月.

19)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上觀察使狀」.

20) 『정만록』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위의 전문은 두 사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쌍충실기』에 실린 내용에는 글자가 결실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정만록』에는 ‘七月 初三日’로 기록되었으나 『쌍충실기』에는 ‘七月 初缺日’이라 기록되었다. 또 『정만록』에는 ‘率軍五十餘名’이라 하였으나 『쌍충실기』에는 ‘率軍二十餘名’이라 하여 거느린 군사的人数의 차이가 30명의 차이를 보인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만록』의 기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에 보이듯이 처음에 50여 명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노약한 군사를 산으로 올려 보내고 30여 명의 정용군으로 싸웠다고 하였다. 만일 『쌍충실기』의 기록대로 처음에 20여 명을 거느리고 싸웠다면 노약군을 산으로 보낸 후에는 20여 명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30여 명으로 싸웠다고 하였기 때문에 『쌍충실기』의 기록이 誤字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자가 결실되거나 틀린 것은 『쌍충실기』 간행 당시 이 문서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글자 판독이 되지 않거나 오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쌍충록』·『쌍충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자료들의 간행과정에서 고의적 가감, 또는 오판 등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할 경우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전투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고성에서의 倡義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등 사족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전주최씨 문중이 고성에 처음 자리 잡은 시기는 16세기 초, 최균·최강의 부친인 崔云哲이 이사하면서부터이다. 즉, 九萬의

昆季峰아래에 집터를 정하고 ‘蘇臺’라 하였다. 함안이씨 문중은 9세 손 仁亨·義亨·禮亨·智亨이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무오·갑자사화로 인해 화를 입고 낙향하여 고성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후로는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던 것이다.²¹⁾

재지사족으로서 전주최씨와 함안이씨는 고성에서의 입지가 확고한 만큼이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을 찾아가 기병할 의지를 보였고 최균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하였다. 우선 최균의 아우인 崔埴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케 하고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을 뽑았다. 그리고 가산을 풀어 고을의 장정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²²⁾

이달의 경우는 1591년 10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란이 발생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했다가 잠시 돌아와 보니 부친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다. 이에 분개하여 喪中임에도 의병을 일으켜 최균·최강의 부대와 연합하였다. 이달의 수하 병사들은 家僮들과 鄉里의 장정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달의 부친이 생전에 가동들과 마을의 소년들에게 궁시를 나누어주며 사냥을 장려하고 추석과 단오에 씨름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등 용맹함과 건장함을 길렀다고 한다.²³⁾ 이들이 모두 이달의 휘하 군사로 편성되어 최균 부대로 달려왔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가족, 친인척, 향리의 親友들로 조직되었으니 고성의병도 이러한 양상이었다. 이달은 최균의 伯父의 외손자로서 從甥姪이었다. 안신갑의 경우는 최균의 여동생의 아들로서 甥姪

21) 『쌍충실기』 권1, 「行狀」; 최명철, 「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관한 연구- 최균, 최강, 이달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4).

22) 『쌍충실기』 권2, 「家乘」.

23) 『雲圃實紀』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이었으며 최균의 조카·사위, 아들들이 준비하였다. 박연홍·최한·정준 등은 고을의 壯士들로서 자원하여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아래의 <표 2>²⁴⁾는 의병 지휘부의 출신과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의병의 구성

직책	성명	성분 및 역할
의병장	崔均(1537~ 1616)	전략 및 군량조달 담당
의병장	崔堉(1559~ 1614)	최균의 아우, 선봉장
의병장	李達(1561~ 1618)	최균의 從甥姪, 선봉장
의병장	安信甲	최균의 甥姪, 선봉장
군관	朴連弘	密陽人
군관	崔憐	全州人
군관	丁俊	昌原人
군관	崔興虎	최균의 장남
군관	崔勇虎	최균의 從姪
군관	崔角虎	최균의 조카(균의 아우 埰의 아들)
군관	崔振虎	최균의 막내아들
군관	徐舜凱	최균의 사위, 문서·금전출납 담당

최균·최강 의병조직의 운영상의 특성은 이원적 구조로서 유격전과 방어전을 나란히 진행하였으니, 최균은 본가인 소대계상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략에 따라 담티고개²⁵⁾로 진을 옮겨서 이곳을 본영으로 삼고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본영)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인 진주·사천·진해·웅천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중흥무진하였다.

즉, 최균은 50대 중반의 고령이기 때문에 유격전보다는 그의

24) 『쌍충실기』 권2, 「家乘」; 권5, 「倡義諸賢錄」.

25) 현재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에 소재하는 곳으로서 『고성지』에 ‘塙峙 在九萬 蘇湖 崔均 壬亂留陣處 石築周圍 約一里許’(『고성지』 권1, 古蹟)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담티계성지에 성벽이 길이 50m, 너비 2m 규모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118~119쪽)

식견을 바탕으로 계책을 세우고 군량조달을 담당하였다. 담티고개는 고성과 진주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서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要路였다. 길이 좁고 산이 험준하여 “이곳이야말로 지키기도 좋고 적에게 속임수를 쓰기도 쉽다”라며 ‘風雲將’이라 써서 길목에 달아 놓았다. 군량조달을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고개에 올라 여러 가지가 달린 횃불을 들게 하여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듯 했다가 다시 불켜기를 반복하는 등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疑兵策을 구사하기도 하였다.²⁶⁾ 이처럼 담티고개 방어는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최강·이달 등은 담티고개를 본거지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활발히 부원하였으니, 임진년 5월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김대명·한계·정승훈 등과 합세하여 고성·사천을 점령한 일본군을 웅천·김해까지 축출하였으며, 7월 진주를 침범하려던 일본군에 대항하여 김시민군과 합세하여 진주로부터 고성까지 추격하였다.²⁷⁾ 이후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을 압박하자 며칠 후 일본군은 창원까지 퇴각하여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0월 1차 진주성전투 당시에는 망진산으로 진출하여 진주성을 포위한 일본군을 견제하였으며 이달은 頭骨坪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²⁸⁾

최균·최강·이달·안신갑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은 고성을 대표하는 의병의 사례로서 구만동 담티고개를 본진으로 하여 최균을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세우고 군량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강·이달·안신갑을 중심으로 정예부대를 꾸려 고성 주변지역을 중흥무진하며 유격전을 펼쳤다가 담티고개로 회군하여 군사를 정비하였다. 이는 의병의 장점인 지리를 이용한 유격전술을 구사하면서 담티고개에 병참기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병진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26) 『쌍충실기』 권2, 「家乘」.

27) 『征蠻錄』 坤, 承政院 開拆(7월 15일).

28) 『난중잡록』 2, 壬辰 10월 6일.

즉, 안정적인 군수·군량 보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격전을 펼 수 있었으니 그 戰力이 배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군과 연합하여 토적활동을 하는 등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사천·진해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고성의병의 활동상이 기록된 『쌍충실기』 및 『운포실기』 등을 토대로 보면 그 규모가 수백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강이 관찰사 김수에게 보낸 書狀²⁹⁾에 의하면 최강 부대가 50명 또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고성의병의 특성에 잘 나타나듯이 최강이 이끌고 다니던 정예부대의 인원에 불과한 것으로 담티고개에 상주하여 병참활동을 하던 의병은 그 활동상이나 병력의 수요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九萬·尺峴 전투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강은 만형인 최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휘하 군관으로서 박연홍·최한·정준 등과 문중자제인 용호·각호·진호 등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이 함께 하였다. 그 외의 가족들은 둘째인 최계로 하여금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가게 하였다. 최강은 최균의 권고에 따라 박연홍과 함께 우선 고성군수에게 알현한 후 무기 등을 지원 받아 구만동으로 돌아왔다. 이때 일본군이 이미 마을을 침략하여 분탕질하고 있었으니 당시 고성지역을 침범한 일본군은 원균의 경상우수군을 깨뜨리고 4월말 경 배둔 부근으로 상륙하여 九萬·馬巖 등 여러 갈래로 진군하였다. 최강은 일본군의 분탕질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反加嶺에서 어린 조카 정호를 구출하였다. 한편, 최균은 그의 본가인 蘇臺 溪上(구만면 효락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최강이 도착하자 즉시 군사를 정비한 후 일본군을

29) 『征蠻錄』 坤, 承政院 開坼(7월 15일).

공격하여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시켰다.³⁰⁾

5월 8일,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와 新川에 사는 李應星의 처 羅氏 부인이 순절하였고 까치골[鵲旨洞]에 사는 羅應璧·羅彦鱗·羅致紋 등 나씨 일가가 일시에 참화를 당하였다.³¹⁾ 이응성은 이달의 再從叔으로 당시 북관에서 정문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씨 일가의 참화소식에 마암에 있던 이달이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달려와 최균·최강·안신갑 부대와 합류하여 나씨 일가를 점거한 일본군을 공격하여 淸巖까지 쫓아내었다.³²⁾

이때 쳐들어 온 일본군은 5월 8일 적진포에서 여염집을 약탈하던 무리들의 일부로 보이는데 경상우수군 전라좌수군이 적진포해전을 치른 후 근처에 사는 향화인 李信同이 찾아와서 한 진술에 의하면, 어제(초7일) 포구로 와서 약탈하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른 아침에 반수는 배를 지키고 반수 가량은 고성으로 향하였다고 한다.³³⁾ 즉, 일본군의 반수는 고성으로 향하였고 배를 지키는 나머지 반은 조선수군에게 격멸당한 것이었다. 초8일 아침에 고성으로 향했던 일본군이 구만 등지 일대를 횡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의병들이 다시 축출하였던 것이다.

5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로 관군과 의병의 규합이 이루어지고 진주성 방어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김시민·곽재우·조종도·최균·최강 등 경상우도의 관·의병이 이 전략에 따라 낙동강 및 사천·고성·진해 등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³⁴⁾ 진주성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로서 진주를 지키는 것은 적침으로부터 유일하게 보전된 호남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고성의병이 본진을 소대계상에

30) 『쌍충실기』 권2, 「家乘」;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31) 『쌍충실기』 권2, 「遺事」.

32) 『운포실기』 권1, 「事實大略」 25년(壬辰); 『쌍충실기』 권1, 「遺稿」, 書, 「與姜士畚一偁 壬辰」(蘇湖蘇溪).

33)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一, 「玉浦破倭兵狀」.

34)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쌍충실기』 권1, 「事實」.

서 담티고개로 옮기게 된 시기도 김성일이 부임하여 지휘를 시작한 5월 말경이었으니 진주성 방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담티고개는 유격전을 펴기 좋을 뿐 아니라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진주로 가는 길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5월~8월 경, 사천성에는 가메이 코레노리, 고성성에는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각각 점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여러 해전에서 조선수군에 패배한 일본군이 황급히 상륙하여 고성·진해 등지를 횡행하고 있었다.

7월 초3일, 고성의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진격하자 최강은 50여 명을 이끌고 일본군 선발대와 싸워 3명을 쏘아 맞추고 격퇴시켰다. 이어서 늙고 약한 군졸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정예병 30여 명으로 요로에 매복하여 弓弩를 설치하였다. 마을을 분탕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맞아 2명을 쏘아 죽이자 적이 퇴각하였다.³⁵⁾

7월 초 7일, 김시민이 이끄는 부대가 고성으로 진출하였을 당시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法川, 尺峴, 鳥峴으로 각각 진격하였다. 이에 복병장 鄭惟敬이 좌우로 공격하여 척현 밑에서 일본군의 선봉 20여 명과 교전하던 중 척현 위에 있던 일본군 70여 명이 내려와 구원하여 퇴각하였다. 이에 활을 끊임없이 쏘아 일본군에 중상자가 많았는데 길이 좁고 험하여 비록 머리는 베지 못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여 민가를 보전하였다.³⁶⁾ 8월에 일본군이 다시 진해·고성·사천을 점령하자 김시민을 중심으로 최균·최강·이달의 부대가 합세하여 사천의 적을 추격하자 고성성으로 달아났다. 이에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의 적을 압박하였고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며칠 후 퇴각하여 진해의 적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을 추격하여 卍小太, 解文,

35) 『征蠻錄』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36) 『정만록』 坤, 承政院 開圻(7월 15일), “晉州判官金時敏馳報內 今七月七日 固城留屯倭賊 分三運 一運來于法川 一運向于尺峴 一運往于鳥峴等處爲去乙 伏兵將鄭惟敬

穎黠 등 적장 3명을 생포하여 함안으로 돌아왔다.³⁷⁾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였다.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삼국 간의 강화교섭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역으로 후퇴하여 울산·서생포·동래·기장·두모포·양산·죽도·안골포·가덕 등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고성을 비롯한 웅천·김해·창원·함안·진주·사천·곤양 등지는 수시로 출몰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었다.³⁸⁾

5.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연해지역에 주둔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명·일 간의 강화교섭이 본격화하였다. 강화교섭 시기에는 부산·김해 및 가덕도·거제도 등지에 일본군이 주둔하여 그 주변을 왕래하며 분탕하거나 접전하는 등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성지역의 경우 간혹 농사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자주 출몰하여 산막을 불태우고 노략질 하거나 살해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최강이 김덕령의 별장으로서 고성 경계지역에 복병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1596년 7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후 공초하는 과정에서 ‘김덕령은 호남에서 거병하고, 홍계남은 영남에서 거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 김덕령이 잡혀갔고 며칠

37) 『쌍충실기』 권2, 「敍述」(嶺營古蹟); 『고대일록』 권1 萬曆壬辰 秋9월 20일, 적장의 이름이 『쌍충실기』에는 ‘平小太’로, 『고대일록』에는 ‘小平太’로 기록되었다.

38)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辛巳(21일).

후 막하에 있었던 최강 역시 붙잡혀 갔다.³⁹⁾ 최강은 석방되었으나 김덕령은 고문으로 죽고 말았으니 최강 부대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병의 사기가 크게 꺾였으며 은둔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정유년(1597) 일본군의 재침은 전라도 공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임진란 때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했던 정책과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전라도는 유일하게 적침으로부터 보전되었던 곳으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이에 일본은 강화교섭 진행과정에서 조선의 남부 4道 할양을 요구하였으며, 관철되지 않자 정유년에 다시 침공하여 실력으로 차지하고자 하였다.

가. 기문포해전과 의병장 박애상

정유년 고성 of 상황은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수개월 전인 거제 기문포해전으로부터 전란이 시작되었으니 이 해전을 살펴보자. 강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본군의 출몰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분쟁이 잦았으며 정유년에 와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1597년 3월 8일, 왜선 3척이 거제 기문포에 정박하고 상륙하였다는 소식에 통제사 원균이 전라우수사 이억기, 안골포만호 우수, 거제현령 안위, 고성현령 조응도 등의 군선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9일 아침 기문포에 도착하였다. 일본군이 배를 정박해놓고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항왜 南汝文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여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돛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총통을 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응도가 지휘하는 고성의

39) 『고대일록』 권2, 丙申 7월 庚寅(25일)·辛卯(26일)·8월 甲辰(9일).

전선이 가장 앞서 나갔는데 그는 판옥선에 射夫·格軍 등 1백 40여 명을 거느리고 출격하였다. 3월 9일 助羅浦 경계의 古多浦에서 접전⁴⁰⁾하였는데 일본군 20여 명이 올라와 교전 중 대부분의 군사가 바다로 뛰어내려 다른 전선으로 구제되기도 하였으나 조응도가 전사하고 射夫·格軍 등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高城)의 판옥선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임치첨사 洪堅, 흥덕현감 李容濟가 적들이 타고있는 판옥선에 불을 질러 모두 소탕하고 배에서 뛰어내린 적들을 참수하였다.⁴¹⁾

이 전투에서 통제사 원균의 지휘로 적선 3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베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측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벌목하는 군사를 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때 豊茂守의 사졸 32명, 고시니 유키나가의 사졸 15명이 모두 참살 당하여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도합 47명으로서 원균이 취한 수급 47급과도 일치한다. 특히, 豊茂守가 김응서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대의 왜 32명이 중선 한 척을 타고 나무를 벨 일로 거제 옥포 지경에 가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조선수군이 유인하여 은밀히 다 죽였으므로”⁴²⁾라고 하였다. 또한 조라포 지경의 고다포에서 접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문포해전은 옥포와 조라포(고다포)의 인근 해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제도의 동쪽 해상에서 있었다.

한편, 이 해전과 관련된 인물로서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雲汀 朴愛祥(1554~1597)을 들 수 있다. 1854년에 창건한 新道洞祠에 조응도와 박애상의 위패를 나란히 모셨는데⁴³⁾ 이는 그가 조응도와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기문포해전

40)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戊申(18일).

41)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甲寅(24일).

42)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乙卯(25일).

43) 『鐵城誌』 권2, 祠院, 新道洞祠.

에서 조응도가 3월 9일에 전사하였는데, 박애상의 「墓碣文」⁴⁴⁾에는 박애상이 3월 29일에 橘島 해상에서 조응도와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시신을 찾지 못하여 옷과 신발을 거두어 초혼장을 지냈다. 특히, 이 묘갈문은 조응도의 傍孫 趙鏞遠이 1855년에 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정유년 3월 29일 왜적과 굴도 해상에서 싸우다가 조공(조응도)과 동시에 순절하였다.”⁴⁵⁾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조응도의 후손들조차 조응도와 박애상의 전사한 날을 3월 29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조응도가 전사한 후 3월 17일 원균의 아우인 元堧이 고성현령에 제수되었으니⁴⁶⁾ 3월 29일에 전사했다는 묘갈문의 기록은 착오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함께 전사했음에도 『선조실록』과 「묘갈문」에 전사한 날이 일치하지 않은 연유를 보자면, 『선조실록』은 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서술하였고 「묘갈문」은 수군의 전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중에 박애상과 조응도 등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기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박애상의 경우는 시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날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후대(1855년)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전사한 곳과 관련하여 기문포가 거제도의 어느 곳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옥포와 조라포의 인근 해역이었는데 박애상이 조응도와 함께 굴도 해상에서 전사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굴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굴도라는 명칭은 「거제부지도」(1872)⁴⁷⁾에 표기된 것이 유일하다. 이

44) 『竹山朴氏忠質公波譜-固城-鐵城-』甲卷(2000), 墓碣文, 「雲汀公諱愛祥墓碣文」(1855).

45) 위의 책, “...丁酉三月二十九日與倭戰於橘島之海與趙公同時殉節...”.

46) 『竹溪日記』권4, 丁酉萬曆三十年 三月 丁未(17일).

47) 「巨濟府地圖」(1872년 지방지도), 奎10512 v.2-10, 여타 각종 고지도에는 ‘柚子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도 유자섬이라고 한다.

굴도는 柚子島라고도 불리는 곳으로서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거제현(고현) 앞 유자도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던 일이 있었다.⁴⁸⁾ 그런데 거제도의 서쪽 바다, 즉 沙谷里·長坪里의 북쪽 해안에 있어서 기문포해전의 위치와는 반대쪽이라는 점이 의문이다. 옥포와 조라포 인근에서 교전중 적들이 북쪽으로 달아나 추격하긴 했지만 서쪽으로 진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48) 『난중일기』 계사(1593) 5월 24일·25일 기사

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일본은 14만여 대군을 정비하여 해상에서는 7월 중순 칠천량해전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격파하여 남해안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육로로 진격하여 8월에 남원성을 함락시킨 뒤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경상우도의 경우는 고성을 비롯해 김해·창원·함안·진주·하동 등 남부지역에 모두 적들이 웅거하였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⁴⁹⁾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의병활동이 전라도에 침략하기 전에 경상도 연해지역은 이미 일본군의 소굴이 되어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 서쪽으로는 전라도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았다. 일본군이 이처럼 해안지역에 성을 쌓은 이유는 본토와의 연락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해로를 통한 군수조달 및 비상시 본국으로 철수하기 좋은 위치였다. 즉,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였다.

고성은 일본군이 점거한 후 고성읍성의 일부를 개수하여 왜성을 쌓았다. 이때 고성지역 역시 의병활동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왜성을 축성할 수 있었다. 고성왜성은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부장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가쓰라 모토쓰나[桂元綱]에 의해 축성되었다. 즉, 1597년 10월 23일에 명령서를 내려 고성읍성 남부 구릉에 짓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성 이후 수성군은

49) 『선조실록』 95권, 30년 12월 乙丑(9일).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타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가 맡았다.⁵⁰⁾ 고성에 주둔군에게 1598년 3월, 군량 2천석이 일본 본토로부터 지급되었으며⁵¹⁾ 병력은 1598년 9월 경 약 6~7천 명이었다. 인근 지역인 진주에 약 400명, 사천에 7~8천 명 가량 주둔하였으며 남원·창원·김해·거제 등지와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고 있었다.⁵²⁾

이후 사천성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군이 조명연합군을 물리치고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였는데 이때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다치바나 무네토라 등도 함께 구원군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노량 해역에서 11월 19일, 조명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치르고 부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철수하였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7년간의 전란이 종식되었다.

고성왜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가 1916년 조선사적유물조사⁵³⁾를 실시하면서이고, 반 미치오[伴三千雄]가 1922년 9월에 城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현재 고성왜성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왜성의 흔적을 확인하였고⁵⁴⁾, 2006년에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고성읍성을 발굴하였는데⁵⁵⁾ 읍성의 일부만 해당될 뿐, 인접한 왜성까지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 본격적인

50)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44쪽.

51) 『日本戰史-朝鮮役-』(參謀本部編, 復刻板, 1978), 附記 82쪽.

52) 『선조실록』 권104, 31년 9월 庚戌(28일)

53) 黑板勝美, 「朝鮮史蹟遺物調査報告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昭和四九年) 52頁.

54) 『고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55)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伴三千雄가 고성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郡吏의 안내를 받아 城址에 이르자 한눈에 일본식으로 축성된 것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本丸이 있고 그 서쪽에는 本丸보다 조금 낮은 커다란 二之丸터를 확인하였다. 本丸의 동부에서부터 남부로 꺾어 둘러진 성곽[帶郭]이 있으며 그 西南 쪽 즉, 二之丸의 남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三之丸이다. 帶郭과 三之丸의 외면은 구릉이 끝나는 곳이 절벽이다. 고성왜성은 기존하는 조선성의 남부에 이어져 있고 3면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탄한 논과 접해 있다. 북쪽은 좁고 길게 되어있으며 조선성의 위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올챙이 모양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어서 성터에서부터 바라보면 보일 정도라고 한다.⁵⁶⁾

6. 맺음말

임진왜란시 고성지역은 수로를 통해 진격한 일본군에 의해 분탕되었고, 육로로 횡행하는 일본군들에 의해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임진년 고성지역을 점거한 일본군 장수는 5~8월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였으며 그 이후 가메이 코레노리가 점거하기도 하였다.

고성의병의 활동은 『쌍충록』·『쌍충실기』를 분석하여 그 성격과 간행과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서술하였다. 의병의 조직은 최균·최강·이달을

56) 伴三千雄, 「再び南鮮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歴史地理』46卷3号, 大正14年 9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구성원들은 가족·친인척, 혹은 향리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병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조직 운영상의 특성을 보면 최균을 중심으로 담티[牆峙]에 본진을 두고, 최강·이달을 중심으로 정예병을 이끌고 고성 및 주변 고을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격전을 펼치는 의병의 장점을 살리면서 본진을 별도로 두어 안정적으로 병참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전투와 병참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그 역량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이 의병들의 활동상은 고성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에 따라 김시민 등의 부대와 연합하여 진주·사천·진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며 명성을 떨쳤다. 또한 수군과 연합하여 해안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성현령 조응도와 의병장 박애상이 함께 활동하였는데, 정유년 3월 9일 거제도 기문포해전에서 함께 전사하였다. 다만 기문포해전의 위치는 거제도 옥포와 조라포 인근의 바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굴도 해상에서 전사했다는 사료의 내용도 그 위치와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약상의 대체적인 사실은 확인된 셈이며 기문포해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단서로서 거제도의 굴도(유자섬)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박애상의 문중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은 지방 및 문중 자료에 간혹 중요한 사실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지방사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유재란시 조선의 의병들은 장기전으로 인해 쇠퇴해져 있었는데,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의 남부지역을 장악한 일본군은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로부터 서쪽으로는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하였다. 고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고성읍성 남부에 왜성을 쌓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고성왜성의 일부가 잔존해 있었다. 당시 일본인에 의해 고성왜성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 伴三千雄는 本丸과 그 서쪽의 二之丸, 남서쪽의 三之丸를 비정하였고 전체 지형과 주변 지리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원고투고일: 2015.3.30,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임진왜란, 고성의병, 최균, 최강, 이달, 쌍총록, 쌍총실기, 기문포, 박애상

<ABSTRACT>

The aspects of the Activities of Goseong Righteous
voluntary Army (義兵) during the Imjin War

Shin, Yun-ho

During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national defense power of Joseon Dynasty had proved its vulnerability in comparison with strong military strengths of Japan, and the entire territory of Joseon except Honam had fall into the hands of Japanese armed forces within two months. Despite th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he military strengths of Joseon and Japan, the major strengths for Joseon to overcome the invasion had rooted from voluntary civilians troops raised for Justice. It is true that deployment of Ming troop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but, the nationwide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 troops had raised civil armies of tens and thousands soldiers all over the country, and pressurized Japanese military forces through guerilla tactics. One of the great examples of such voluntary civilian forces' acts is the ones of Goseong region. Goseong is located in a costal area, and thus, was exposed to the enemy forces both from the land and the sea. During the early periods of the invasion, rampancy of Japanese army in the region was beyond description. Japanese naval force had invaded from the southern sea, defeated the Gyeongsang Left Wing Naval Army led by Won Gyun, and made its way into Jinhae, Goseong and Sacheon while land force of Japan invaded by land through Changwon, Haman and Jinhae. Japanese commanders those who had occupied Goseong through naval paths were Gamei Korenori

and Horinouchi Ujiyoshi. They were among the Japanese forces that had invaded Joseon through the southern sea with fleet of vessels.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s against these invasions were very active and bodacious, and the greatest examples of such movements in Goseong region are the civil troops' actions raised by Choi Gyun,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Their activities area was very broad including Jinju, Sacheon, Jinhae, Changwon and Woongcheon on top of Goseong. For their forms of activities, in particular, roles in logistics and combat activities were assigned on people separatedly, and the troops were managed efficiently. They set their military headquarter in a location safe from enemy forces so that elders, females and children can concentrate on logistic activities such as military procurement while young men including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formed combat units and mounted guerilla actions from different locations around the military commanding posts. Choi Gyun was already an aged man at the time. He was a man of great intelligence and possessed great knowledge on military tactics, and therefore, stayed in the headquarter to organize combat strategies and to work on overall management of the troops.

『Ssang Chung Rok (雙忠錄)』(1823) and 『Ssang Chung Sil Gi (雙忠實紀)』(1929), books containing texts and documents left by Choi Gyun and Choi Gang and records of their activities, are the major historical sources to examine voluntary civilian movement in Goseong. Since these are the sources of great significance, a thorough review of their historical accuracy is required. 『Ssang Chung Rok』 is a recording of great activities of the brothers Choi Gyun and Choi Gang, and 『Ssang Chung Sil Gi』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ormer. These two books were published 200 years after the invasion, and thus, some contradictions were observed in many aspects including dates and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through examination in comparison to other sources.

Activities of Jo Eung-do and Park Ae-sang, the government officers of Goseong at the time of Jung Yu Jae-ran, and they had died in a navel battle near Geojedo Island. After that, Japanese forces had re-occupied Goseong, and parts of Goseong Town Wall was modified into Japanese fortress. The Goseong Japanese Fortress was first examined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urrently, small parts of the fortress wall are still remaining since most parts of the fortress were demolished and replaced with private residential houses.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Voluntary civilian movement in Goseong, Choi Gyun, Choi Gang, Lee Dal, Ssang Chung Rok, Ssang Chung Sil Gi, Gi Moon-po, Park Ae-sang